



지난 31일 오후 7시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대 KIA 타이거즈 경기 개막전 8회초 1사 만루에서 KIA 나지완이 만루홈런을 쳐 홈을 밟은 후 서동욱, 최형우, 김주찬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피겨 최다빈 해냈다
올림픽 티켓 2장 확보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간판 최다빈(17·수리고)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총점 190점을 넘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 2장을 획득했다.

최다빈은 지난 1일(한국시간) 핀란드 헬싱키 하르트발 아레나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9.72점, 예술점수(PCS) 58.73점을 받아 128.45점을 기록했다.

그는 29일에 열린 쇼트프로그램 점수 62.66점을 합해 총점 191.11점으로 종합 10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1.2위 선수의 소속 국가는 올림픽 출전권 3장씩, 3~10위는 2장씩 받는다. 1~10위 중 같은 국가의 선수가 중복될 경우 10위 밖에 선수가 각 1장씩 순위에 따라 남은 출전권을 나눠 가진다.

최다빈은 '튠10'에 들어 출전권 2장을 옮겨줬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는 국내 선발전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최다빈은 이날 완벽한 연기를 뽐냈다. 그가 기록한 191.11점은 올해 2월 강릉에서 열린 4대륙 대회에서 세운 ISU 공인 개인 최고점(182.41점)을 8.70점 경신한 신기록이다. 아울러 김연아 은퇴 이후 한국 선수 ISU 공인대회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다.

이전까지는 작년 11월 박소연(단국대)이 기록한 185.19점이 김연아 이후 최고 총점이었다.

지난 1월 임은수(한강중)가 강릉에서 열린 국내대회에서 191.98점으로 우승했지만, ISU 비공식 대회라 공식 점수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호랑이 마운드 양극화... 위닝 시리즈에도 '짹짹'



'위닝 시리즈'에도 웃지 못한 '호랑이 군단'이다.

KIA 타이거즈가 2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3-16 대패를 당했다. 앞선 1, 2차전 승리로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지만 마운드 양극화라는 큰 숙제를 확인했다.

외국인 선발 듀오의 막강한 힘은 KIA를 웃게 했다. 헥터는 여전히 노련했고, 팻딘도 시범경기 호투를 이어가면서 '대박'을 예고했다.

개막전 선발로 나선 헥터는 7이닝 6피안타(1피홈런) 6탈삼진 1실점으로 첫 등판을

KIA, 삼성과 개막전 2승1패
헥터·팻 딘 호투...시즌 기대감
한승혁 등 9회 7실점은 '참사'
김윤동 선발 3차전 3-16 대패
4~5선발·불펜 고민 깊어져

마무리했다. 헥터가 삼성 페트릭과의 마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삼성 불펜을 먼저 불러냈다. 그러자 때를 기다리던 타자들이 차분하게 기회를 만들었고 나지완의 만루포까지 타지면서 7-2 경기의 승리투수가 될 수 있었다.

팻딘은 더욱 매서워졌다. 6회까지 3개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삼성 타자들을 압도했다. 비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흐름이 끊었던 7회에는 피안타 두 개와 몸에 맞는 볼

도 내줬지만 실점 없이 첫 피칭을 마무리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49km까지 찍혔고, 커브를 비롯한 변화구의 움직임도 좋았다.

헥터에 이어 팻딘까지 진짜 무대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막강 외국인 선수 듀오를 구성하게 됐지만 4·5선발과 불펜 고민이 남았다.

KIA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양현종까지 더해 3선발을 꾸렸다. 그리고 김진우의 부상 악재 속에 김윤동, 홍건희, 임기영, 고효준을 4·5선발 후보로 놓고 경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2일 선발로 나온 김윤동과 이어 나온 홍건희가 고전하면서 선발진의 양극화가 눈에 띄었다. 두 선수 모두 장점이자 주무기로 꼽힌 목적인 직구를 난타당하면서 고민은 더 크다.

김윤동은 2회 이승엽과 김현근에 홈런

두 방을 내주면서 첫 선발 등판에서 4실점을 했다. 3회까지 투구수가 75개에 이르면서 3이닝 4피안타(2피홈런) 1탈삼진 4실점으로 첫 등판을 끝냈다.

이어 나온 또 다른 선발 후보 홍건희도 길고 긴 4회를 보냈다. 첫 타자 이지영과의 승부에서 우전안타를 내준 홍건희는 아웃카운트 세 개를 만들 때까지 8개의 안타와 볼넷 하나를 내줬다. 폭투까지 더해 8실점을 하고야 홍건희의 시즌 첫 등판이 마무리됐다. 여기에 고효준도 이를 연속 불안한 피칭을 하면서 2이닝 5실점으로 힘겨운 개막 시리즈를 보냈다.

1일 '불펜 참사'도 KIA에는 충격이었다. KIA는 이날 선발로 나온 팻딘의 호투 속에 7-0의 리드 상황에서 마지막 9회 수비에 나섰다. 베테랑 김광수가 안타에 이어 3루수 김주형의 실책으로 무사 1·2루에 돌렸고, 최정철이 스리런을 허용했다. 원

아웃에서 고효준이 등판했지만 볼넷과 안타로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하고 강판됐다. 갑작스런 위기에 '시범경기 스타' 한승혁에 이어 마무리 임창용까지 투입됐지만 7-7 동점까지 허용했다. 수비 시프트로 강한울의 안타를 간신히 막으면서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의 9회였다.

그나마 뒷심을 발휘, 상대 마무리 심창민을 상대로 10회 2점을 만들며 9-7승리를 만들기는 했다. 여기에 '예비역' 박지훈이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복귀전을 치렀고, 1일 불펜 최후의 보루로 세이브를 기록한 최완 심동섭이 두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점은 위안이다.

타석에서는 '최형우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개막 시리즈에서 희망과 속재를 동시에 본 KIA는 4일 안방에서 SK와이 번스를 상대로 홈개막전을 치른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강한울 친정팀과 승부 뜨거웠다

KIA 최형우 1홈런 등 3안타...삼성 강한울 4안타

KIA 최형우와 삼성 강한울이 '친정'을 상대로 특별한 개막시리즈를 보냈다. 최형우와 강한울은 FA와 보상선수로 유니폼을 맞바꿔 입고 2017시즌을 맞았다. 마친 시즌 개막전이 KIA와 삼성의 경기로 전개되면서 두 선수의 움직임은 눈길을 끌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지난 31일 빨간 유니폼 차림의 최형우는 "설렌다"며 FA 이적 후 처음 친정을 찾은 소회를 밝혔다.

"대구와서 속수에 내리는 데 다른 원정하고 다른 기분이었다. 시범경기는 청백전 느낌이었다. 집중해서 하겠다"던 그는 이날 2회 선두타자로 첫 타석에서 섰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 헬멧을 벗고 자신에게 응원을 보내줬던 삼성팬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그는 페트릭을 상대해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두 번째 타석은 헛스윙 삼진. 하지만 1-1로 맞선 6회 2사 2루에서는 우익수 키를 넘

기는 타구로 3루까지 내달리면서 2-1을 만들었다. 이후 KIA가 리드를 뺏기지 않고 7-2로 경기가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최형우는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일 두 번째 경기에서도 최형우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0-0으로 힘겨투기를 하던 4회 1사에서 김주찬의 2루타에 이어 최형우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만들었다. 선두타자로 나온 8회에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이흥구의 희생플라이 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도 올렸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포를 가동했다. 최형우는 2일 0-4로 뒤진 4회 1사 1루에서 2루타를 쳐 시즌 첫 홈런을 기록하는 등 친정팀을 상대로 순조로운 시즌을 출발했다. 마운드의 난조가 아쉽기는 했지만 아쉬운 대로 팀도 2승1패를 기록했다.

파란 유니폼의 강한울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차례 등장했다. 31일 최형우의 적시타가 나온 상황에

앞서 강한울은 송구실책을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주자로 협살에 걸려 아웃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옛 동료들 상대로 세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만들었다. 영웅이 될 수 있던 장면도 있었다. 1일 삼성이 9회에 7점을 뽑으면서 7-7까지 승부를 끌고 간 2사 만루. 타석에 강한울이 섰다. 상대는 KIA 마무리 임창용. 강한울이 초구에 방망이를 휘둘렀고 공은 외야로 매섭게 날아갔다. 안타성 타구였지만 강한울을 잘 아는 KIA가 우익수를 바짝 당겨 놓으며 '강한울 시프트'를 걸었고, 끝내기 안타가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둔갑했다.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접어들었고 KIA의 9-7 승리로 끝났다.

강한울은 "9회 공이 잡힌 게 아쉬웠다. 아무래도 첫 경기부터 KIA를 만나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KIA를 상대하러니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금방 적응됐다. 올 시즌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나지완 "만루포는 인생 홈런...내가 안 친 것 같다"

덕아웃 T 특특

▲내가 안 친 것 같아요=치고도 믿지 못할 예술적인 홈런이었다. KIA 나지완은 지난 31일 삼성과의 개막전 2회 첫 타석에서 페트릭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 올리며 2017시즌 KBO리그 첫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여기에서 끝났지 않았다. 그는 2-1로 앞선 8회 2사 만루에서는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시즌 첫 만루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두 번째 만루홈런은 바깥쪽 낮은 공을 손목으로 밀어 만든 기술적인 홈런이었다. 선수 시절 홈런 좀 쳐봤던 김기태 감독이 "예술이었다"고 인정한 홈런. 나지완 자신도 "인생 홈런인 것 같다. 어떻게 쳤는데 모르겠다. 내가 안 친 것 같다"며 감탄할 정도로 멋진 한방이었다.

▲미쳤나 봐요=삼성 유우민은 지난 1일 KIA전 선발로 나와 5·6회를 모두 삼진으로 장식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국프로야구 최다 연속 탈삼진 기록은 KIA 이대진 코치가 가지고 있는 10개. 하지만 유우민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3구 삼진에 있다. 유우민은 5회 이흥구를 시작으로 김진

빈, 배나디나 그리고 6회 첫 타자 노수광까지 공 3개로 처리했다. KBO 역사상 처음 나온 네 타자 연속 3구 삼진 기록이었다. 유우민은 "(타자들이) 미쳤나 봐요"라고 웃으며 "앞선 이닝과 똑같이 던졌는데 기록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유우민은 탈삼진쇼를 펼쳤지만 7회 연속안타에 흔들리며 6.1이닝 8피안타 7탈삼진 6실점(4자책)을 기록했다.

▲괜찮아요=KIA의 새 외국인 투수 팻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데뷔전이었다. 팻딘은 지난 1일 삼성과의 경기를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시범경기에서 안정적인 피칭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팻딘은 정규시즌 첫 등판에서도 7이닝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무실점의 위력투를 선보이며 인상적인 데뷔전을 끝냈다. 하지만 "내가 나오는 경기에 팀이 이기는 게 목표다. 팀이 이겨서 괜찮다"며 "전체적으로 피칭은 좋았다. 앞으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어르신 생활체육대추전

도체육회 내일부터

환갑을 넘긴 전남 22개 시·군 어르신 19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등을 겨루며 젊음을 뽐낸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순천 팔마체육관을 비롯, 순천 일대에서 '제 12회 전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추전'을 연다.

이번 축전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열리며 전남 22개 시·군 만 60세 이상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 1900여명이 참가한다.

축전에서는 게이트볼과 궁도, 배드민턴, 산악, 정구, 체조, 탁구 등 종목 경기와 '대형 공굴리기' 등 3종의 레크리에이션 종목이 펼쳐진다.

또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유지해온 김정인(88·게이트볼·담양), 윤홍진(87·궁도·영암), 민병진(85·그라운드골프·해남), 임금례(77·산악·함평), 최선호(74·배드민턴·고흥), 임권식(85·체조·해남), 이종철(80·정구·광양), 이대희(79·탁구·영암), 정연임(83·순천) 씨 등에 대한 건강강사 시상식도 열린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